

[먼저 / 훈련의 방향부터-] 해설을 읽기 전에 한 번 읽어 봅시다.

- ① 비문학 지문에는 잉여가 없다. 다만, 정보의 중요도만 있을 뿐이다.
- ② 지문 독해 방법들이 보이면 좋다. 그러나 독해력이 먼저다.
- ③ 지문의 흐름을 장악하면 좋다. 그러나 독해력이 먼저다.
- ④ 지문의 구조가 보이면 좋다. 그러나 독해력이 먼저다.
- ⑤ 수능 독해는 '불완전한 정보 처리 과정'이다.

지문 '차분히' 읽고 전체 '독해' → 선택지 읽기 → '이해' 후 판단 or 지문으로 돌아가서 부분 '독해' 후 판단

수능 독해는 '이해' 아니면 '기억'이다.

독해력 상승 → 공통감 형성 → 미시적 독해의 완성 → 독해의 끝

[수능 독해의 기본 : 독해력을 키우는 습관]

- ① 첫 문단은 무조건 감속이다.(중요도를 판단하지 말고)
 - 물리적인 첫 문단 / 흐름이 바뀐 후 첫 문단
 - 첫 문단은 화제를 제시하거나, 방향을 암시한다.
- ② 각 문단 첫 번째 줄은 방향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차분히 읽는다.(중요도를 판단하지 말고)
- ③ 차분히 읽다가, 어느 순간 머리에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 문장, 문단들이 등장한다.
 - 속도를 줄여 차분히 읽고 / 손을 쓰거나 / 일단 처리하며 내려가거나
- ④ 개념 정보 / 방향 정보 / 사전 정보 / 세부 정보
 - 1) 개념 정보(C) : 중심 화제의 개념(이해해야 한다)
 - 2) 방향 정보(D) : 글의 흐름, 방향(보이면 좋다)
 - 3) 사전 정보(B) :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가 깔아주는 배경 지식(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기억)
- ⑤ 지문의 구조가 보이는 순간 가속이 시작될 수 있다.(구조가 보이면 정보량이 줄어든다.)
- ⑥ 중요하면 물어본다.(중요한 정보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 공통감 형성
 - 1) 문제 - 해결 2) 차이 3) 관계 4) 과정, 원리, 순서 5) 통시 6) 개념 - 사례

[한수달] 국어 Preview Training

[6주차 고난도 독서 수업용 해설]

[이승모]의 수업용 해설 활용법]

- ① 이 해설은 현장 강의의 해설을 글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S1]을 풀고 나서 이 해설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 ② 해설이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한수 온라인)
- ③ '독서'는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를 비교하시면 더 좋고, [사고의 진화]라는 부분 역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④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개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시면 수능 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반말로 쓰는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짐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5주차] 독서 수업 지문

2017학년도 수능 - 보험

[수업 내용 주요 사항]

독해력과 독해 방법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둘 중 하나가 더 중요해야 한다면 독해력이 먼저다. 우리는 1년 동안 이 독해력을 서서히 키워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흘러가는 곳은 흘러가고 괜히 중요한 것은 무의식에 각인을 하며 읽는다. 흐름을 타면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거나 기억에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은 시험장에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하는 것이다. 시험장에서는 그냥 읽느라 바쁘다.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무의식에 체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체화하기 위해 강사는 흐름이나 방향, 도구 같은 것들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 문장이 -라서 중요하다.'라고 강사는 설명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이 문장이 -라서 중요하구나.'라고 학습한다. 학생들은 이것을 1년 내내 계속 듣고 비슷한 문장을 보게 된다. 그러다보면 실전에서 학생들은 '라서 중요하겠다. 이건 중요한 정보야. 챙겨야지. 차분히 읽자.'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중요해 보인다. 그냥 읽으면서 중요하겠다는 느낌이 들면서 최대한 이해하고 최소한 각인하며 내려가면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수업의 목적을 구구절절 설명했나면. 오늘은, 독해력도 독해력이지만 도구라는 것을 조금 선명하게 설명해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학습할 도구들이다.

[차이]는 언제나 중요하다.

- 공통점이 보이면 공통점을 잊지 말자.
- : 지문에서 차이가 부각되면 차이에 집중하며 읽는다. 그러나 필자가 은근슬쩍 숨겨 놓은 공통점이 보인다면, 잊지 말자. 출제자는 차이를 부각해놓고 정작 공통점을 물을 때가 많다.

[왜?]라는 말이 나오면 정해진 흐름이 있다.

- : 왜? → 근거(이유) → 결론
- '왜?'라는 문장은 항상 결론을 전제한다. 즉 이미 '왜?'를 읽는 순간 결론은 정해진 것이다. 이유는 실전에서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해 못할 수도 있다. 일단 이유에 종속되지 말고, 결론을 확실하게 챙긴다. 결론은 이미 재진술이기 때문이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D)이 알려졌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첫 문단은 감속이다. 또한 차이는 언제나 중요하다. 고전 역학은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으나,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에서 상호 배타적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이 정도를 명확하게 읽어줘야 한다. 결국 이 지문은 양자 역학의 관점에서 미시 세계에서 상호 배타적 상태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설명하는 방향의 글이 된다. 방향 정보이다.
- ② 조금 더 미시적으로 글을 잘 읽고 싶다면, 차분히 읽으면서 문장에 걸린 조건을 챙기면서 읽으려고 노력해보자. 조건문은 주로 '~면', '~ㄹ 때'의 형태로 혹은 보조사 '는'을 통해 제시되는데, 여기서는 보조사 '는'을 사용하여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다. 고전 역학과 달리 양자 역학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인정하는데, 조건이 붙는다. '미시 세계'라는 조건이다. 즉 양자 역학은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미시 세계'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 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달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2문단에 제시된 두 개의 예시(㉠, ㉡)는 '미시 세계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들이다. 이를 위해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지 않는 '거시 세계'의 예시와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미시 세계'의 예시를 함께 제시해 준 것인데, 말 자체가 낯설어서 다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국어 영역

방향으로 결정'이라는 문장은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1문단에서 얘기했던 (1)의 내용과 (2)의 내용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 ② 거시 세계에서는 관찰 이전에 이미 회전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 '관찰'을 통해 이미 정해진 회전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 즉 두 가지 회전 방향이 공존한다. 즉 '전자 팽이'는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회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 팽이'를 '관찰'함으로써 회전 방향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 따라서 미시 세계에서는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애초에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1문단 (1)의 연결 지점이다. 결과적으로 2문단에서 제시한 거시, 미시 세계의 차이점을 도식화 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거시 세계 : 결정 ⇨ 관찰], [미시 세계 : 관찰 ⇨ 결정]

- ③ “_____” 문장은 어차피 비유적인 표현이니, 그 문장보다는 앞의 문장에 더 눈이 갔어야 한다. 아인슈타인이 '문제 의식'을 느낀 부분은 앞 문장에서 제시해주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이 상태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둘은 같은 맥락이지만 문장에서 '과'를 통해 연결하였으니, 일단은 별개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결국 아인슈타인이 '달'을 통해 주장하려고 한 것은 '상호 배타적인 상태는 공존할 수 없다.'와 '관찰이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관찰하기 이전에 상태는 결정되어 있다)'가 된다. 달의 '상태'를 '존재'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19번 문제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D)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양자 컴퓨터 정도 기억할 것이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흘러가며 읽게 될 것이다.
 ② 이와 비슷한 의문을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말을 보는 순간 지금부터 양자 역학에서 논리학으로 지문의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것만 눈치채면 되겠다.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C)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B)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언제나 차이는 중요하다.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면 명확한 차이가 각인될 것이다. 정리하면,
 고전 논리 : 참 or 거짓
 프리스트 : 참 or 거짓 or 참 동시에 거짓
 이 정도는 명확히 들어와야 한다.
 ② 이 와중에 첫 문단에서 차이가 명확하게 각인 되었고, 두 번째 문단에서 양자 역학에서 미시 세계에서 상호 배타적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각인한 학생이라면, '참 동시에 거짓'을 보자마자 '상호 배타적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을 지각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면 '참 동시에 거짓' 보자마자 '아! 상호 배타적 상태랑 비슷하네.' 했으면 좋겠다. 첫 문단 잘 읽고 차분히 내려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③ 「 」는 사전 정보이다. 즉 프리스트의 진리치 '참 동시에 거짓'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거짓말쟁이 문장과 자기 지시적 문장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 설명하고 있다. 각 개념을 파악하고 사례를 통해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자기 지시적 문장은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니, 시작이 '이 문장'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끔 의식이 많은 학생들은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를 진짜 열여덟 음절인지 세어보기도 하던데... 평가원을 믿자.

[사과의 진화]

이것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언제나 차이는 중요하다. 그러나 공통점을 잊지 말자. 당연히 차이가 부각되면 우리는 차이를 챙기면서 읽는다. 그러나 출제자는 차이를 부각하면서도 은근히 공통점을 제시한다. 이때, 평가원에서는 먼저 공통점을 묻는다. 즉 프리스트를 읽을 때, '참 동시에 거짓'이 고전 논리와 차이를 부각되겠지만, 프리스트의 진리치는 분명히 '참'과 '거짓'도 있다. 즉 참과 거짓은 공통점, 참 동시에 거짓은 차이점이 된다. 혹시 읽을 때 '참'과 '거짓'이 들어오지 않았던 학생이라면 이 문장을 다섯 번 정도만 읽고 익숙하게 해두자. 오해는 하지 말자. 우리는 차이에 집중하면서 읽는다. 공통점이 무조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이면 좋은 것이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4문단에서 '자기 지시적 문장'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5문단에서 '거짓말쟁이 문장'의 개념을 이해할 차례이다.

국어 영역

- ②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라는 문장에 일단 주목한다. 이것은 [사고의 진화]에서 제대로 언급할 것인데, 모든 ‘왜’라는 문장은 사실 결론을 전제할 문장이다. 결국 이 문장에 이미 결론이 있다. 프리스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 ③ ‘ㄱ’ 부분은 실전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가 될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내려가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차분히 읽어 보면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도식화했었는데, 도식화를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차분히 읽으면서 이해해보자.
- (1) ‘이 문장은 거짓이다’(참) → 이 문장(거짓)
 (2) ‘이 문장은 거짓이다’(거짓) → 이 문장(참)
- ④ ‘ㄷ’ 부분이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단 결론이다. 프리스트는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라고 한다. 결론은 무조건 챙겨야 한다.

[사고의 진화]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를 차분히 읽으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사실 결론을 전제할 문장이다.

쉽게 말해, ‘왜’라는 말이 나오면, 글의 흐름이 정해지는데,
 ‘왜?’(질문) → 이유 / 근거 → 결론

의 흐름이 된다. 그런데 사실 ‘왜’라는 문장은 이미 결론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전에서 ‘왜?’라는 말이 나오면 이유나 근거를 읽기 전에 결론을 미리 읽게 되어 있고, 근거 설명이 끝나면 다시 같은 결론을 보게 된다. 실전에서는 ‘이유 / 근거’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 강조한 결론은 무조건 챙겨야 한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C)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우선 6문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점검해보고, 이 지문에 숨겨진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 일단 프리스트가 LP를 제시했다고 한다.
- ②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다만 전건 긍정 규칙을 우리가 모르니까 출제자가 설명해준다. 일단 차분히 읽으면서 개념을 챙긴다. ‘P(전건)이면 Q(후건)이다.’(조건문)의 내용이 잘 읽혔으면 상관없지만 잘 들어오지 않았다면 P나 Q에 각각 표시해주는 것이 좋다. 전건 긍정 규칙은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 후건은 반드시 참이라는 것인가 보다.

- ③ LP에서도 성립해야 하는데, LP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정도까지는 ‘차이’로서 들어와야 한다.
- ④ ‘ㄱ’에 제시된,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라는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앞에서 계속 설명할 때, 조건문과 전건이 참일 때 후건이 어떻게 되냐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전건과 후건부터 얘기하니까 더더구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전에서는 이 부분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 거다. 쉽게 말해 ‘왜?’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일단, 결론은 냈다.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만, LP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흐름을 기억하고 일단 내려가야 한다.

[사고의 진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시험 때에는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지금 분석 중이므로 그래도 이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 설명하는 것이므로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먹고 차분히 읽으면서 글을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6문단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 하나를 다시 적어보겠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이것을 정리해보자.

P(전건)이면 Q(후건)이다.(조건문)
 참인 동시에 거짓 거짓 참인 동시에 거짓

즉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면,

P(전건)이면 Q(후건)이다. (조건문)
 참인 동시에 거짓 참인 동시에 거짓 참인 동시에 거짓

이 되어야 하는데, LP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후건이 거짓이 된다.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5문단의 거짓말쟁이 문장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뜬금없던 거짓말쟁이 문장이 사실 글의 논리와 완성도를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해보겠다. 다만 거짓말쟁이 문장도 사실 조건문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이 문장은 거짓이다.(조건문)
 전건 후건

(1) ‘이 문장은 거짓이다’(조건문이 ‘참’) → 이 문장(전건이 ‘거짓’)

(2) ‘이 문장은 거짓이다’(조건문이 ‘거짓’) → 이 문장(전건이 ‘참’)

따라서 (1)과 (2)를 함께 보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조건문이 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고, 전건 역시 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이든 (2)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후건은 ‘거짓’이다.

다시 말해, LP 역시 거짓말쟁이 문장 같은 것인 셈이다. 즉 괜히 거짓말쟁이 문장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6문단에서 LP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 거짓말쟁이 문장을 설명했던 것이다. 다만 우리는 실전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풀 수도 없고, 정말 잘 이해했다면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의 내용이 반례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었을 뿐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독해력을 출제자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기억하자. 독서 지문에는 ‘임여’란 없다. 결국 모든 문장이 지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는 시험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도가 있을 뿐이다. 차분하게 읽고 거짓말쟁이 문장과, LP 설명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6문단의 한 문장을 이해해보면 좋겠다.

*LP :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국어 영역

독서 1번 문제 답 : ③		
③	O (정답)	<p>아인슈타인이 '달'을 통해 주장하려고 한 것은 결국 '상호 배타적인 상태는 공존할 수 없다.'와 '관찰이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관찰하기 이전에 상태는 결정되어 있다)'라는 내용이다.</p> <p>선지 중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부정하는 내용은 없으니, '관찰하기 이전에 상태는 결정되어 있다'는 내용의 선지를 찾으면 된다.</p> <p>'팽이'의 상태가 '시계 방향 회전/반시계 방향 회전'의 두 가지였다면, '달'의 '상태'는 '존재/존재X'의 두 가지이니, '상태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존재 여부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치환할 수 있다.</p> <p>이렇게 '상태'를 '존재'로 바꿔보면 ③번 선지를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다.</p> <p>정답 선지 외에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했던 선지가 ②번 선지였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부정하고자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관찰이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였다. 그러니까 '미시/거시' 여부는 아인슈타인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②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면, 아인슈타인은 '거시 세계'에서만 '관찰⇒결정' 관계를 부정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 '미시 세계'에서는 '관찰⇒결정' 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p>

독서 2번 문제 답 : ④		
<p>마치 한 편의 기술 지문 같은 <보기>인데, 경작 봐야 하는 내용은 단순하다.</p> <p>[기본] n자리 이진수 = 2ⁿ개</p> <p>(1) 양자 컴퓨터 : n비트 ⇒ n자리 이진수 처리에 연산 1번 필요</p> <p>(2) 일반 컴퓨터 : n비트 ⇒ n자리 이진수 처리에 연산 2ⁿ번 필요</p>		
①	X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의 차이는 이진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연산 횟수의 차이이다.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하여 연산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X	3비트를 이용하여 3자리 이진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는 1번의 연산이 필요하고 일반 컴퓨터는 8번의 연산이 필요하다. 연산 횟수의 차이는 6배가 아니라 8배 차이가 난다.
③	X	1비트를 이용하여 1자리 이진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는 1번의 연산이 필요하고 일반 컴퓨터는 2번의 연산이 필요하다.
④	O (정답)	양자 컴퓨터가 4비트를 이용하면 4자리 이진수를 1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n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2 ⁿ 개이므로, 4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16개이다. 양자 컴퓨터가 4비트를 이용하면 16개의 이진수를 1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⑤	X	<p>⑤번 선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일단 전제는 아래와 같다.</p> <p>양자 컴퓨터가 3비트를 이용하면 1번의 연산으로 3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가 6비트를 이용하면 1번의 연산으로 6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p> <p>이때 3자리 이진수 연산이든 6자리 이진수 연산이든 모두 1번에 처리가 가능하니 연산 속도는 둘이 같다는 의견이 있고, 전자는 2³개의 이진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고 후자는 2⁶개의 이진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니 후자의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보기>에서 '연산 속도'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준 것이 아니어서 둘 중 어떤 것이 맞는 해석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⑤번 선지의 진술은 틀린 진술이므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p>

독서 3번 문제 답 : ②		
①	X	'이 문장은~'으로 시작하지 않는 문장이다. 봉어뿔을 가리키는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장으로 볼 수 없다.
②	O (정답)	<p>괜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않으면 된다. 지문 분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지시적 문장'은 자기 자신을 지시하는 문장이므로, '이 문장은~'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장이 된다.</p> <p>'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문장은 '이 문장은~'으로 시작하고 있으니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라는 문장은 '거짓'이 아닌, '참'인 문장이 된다.</p>
③	X	'이 문장은~'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④	X	층위 구분이다.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장'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고전 논리에서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장' 중에서도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⑤	X	똑같은 층위 구분이다.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에서 '참인 동시에 거짓' 진리치를 부여한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장' 중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독서 4번 문제 답 : ⑤		
①	X	지문을 참고하면 LP에서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된다고 하였다.
②	X	지문에서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일 때 (후건)이 '거짓'이 되는 상황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X	
④	X	'LP'에서 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었다면, ④, ⑤번 선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⑤	O (정답)	'고전 논리'에서는 '참/거짓' 두 개의 진리치만 존재한다. 따라서 '고전 논리'에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④, ⑤번 선지는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전건)과 ㉠(조건문)이 '참'으로 같으면 (후건)도 '참'이 된다.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어 영역

독서 5번 문제 답 : ㉓		
<p><보기>를 읽으면서 필요한 사고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 1</p> <p>① [A] : 참 / 거짓 ⇔ 2개의 진리치 ↓ ② [B] : 참 / 거짓 / 참인 동시에 거짓 ⇔ 3개의 진리치 상호 배타적인 상태 공존 인정</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 2</p> <p>(ㄱ), (ㄴ) : '전자' ⇔ '미시 세계(관찰 이전)' (ㄷ), (ㄹ) : '반지름 5cm 팽이' ⇔ '거시 세계'</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 1+정보 2</p> <p>① [A] : (ㄱ), (ㄴ) = (ㄷ), (ㄹ) = 상호 배타적 상태 공존 '불가능' ↓ ② [B] : (ㄱ), (ㄴ) = 상호 배타적 상태 공존 '가능'(미시 세계) (ㄷ), (ㄹ) = 상호 배타적 상태 공존 '불가능'(거시 세계)</p>		
①	○	[A]에게는 '참', '거짓'의 두 진리치만 존재한다. 따라서 (ㄱ)에 대해서도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두 개의 진리치 외에는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	(ㄱ), (ㄴ)은 미시 세계의 전자(관찰 이전)를 다루므로 [B]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ㄱ), (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B]도 거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거시 세계의 대상을 다루는 (ㄷ), (ㄹ)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③	○	거시 세계에서는 [A]와 [B]의 의견이 동일하다. [A], [B] 모두 거시 세계에서는 (ㄷ)과 (ㄹ)이 모두 참인 경우, 즉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④	○	(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 e가 S와 배타적인 상태에 있는 동시에 S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의미하므로, [A]는 (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B]는 (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B]는 [A]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⑤	X (정답)	거시 세계, 즉 (ㄷ)과 (ㄹ)에 대해서는 [A]와 [B]의 의견이 동일하다. 거시 세계에서는 [B]도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려면 반지름 5cm의 팽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시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거시 세계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되는 것이므로 [B]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B]에게도 (ㄹ)은 '참' 혹은 '거짓' 중에 하나이지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독서 6번 문제 답 : ㉓		
①	○	㉓는 '따르먼'으로 사전적 의미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면'에 해당하고, 문맥적 의미는 고전 역학에 '근거하면'이라는 뜻이므로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는 뜻의 '의거(依據)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②	○	㉔는 '알게'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게'에 해당하고, 문맥적 의미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는 뜻의 '인지(認知)하다.'는 적절하다.
③	X (정답)	㉕의 '지니게'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게'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것을 한자어로 바꿀 경우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는 뜻의 '보유(保有)하다' 정도가 적절하다. '소지하다'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상식적인 생각'들이 물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④	○	㉖는 '던진다.'로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문제 따위를 제기하다.'에 해당하고, 문맥적 의미도 같으므로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놓다.'는 뜻의 '제기(提起)하다'는 적절하다.
⑤	○	㉗는 '들어맞는다'로 사전적 의미는 '정확히 맞다.'이고 문맥적 의미도 같으므로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는 뜻의 부합(符合)하다는 적절하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개학이 미뤄지고 학사 일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 수능 날입니다. 혼란스럽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주 독서 분석지에도 적어두고 있습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홍보해봅니다.

저희 조교들이 계정을 만들어준 거라 계정 이름이 조금 민망하지만, www.instagram.com/mo.mo_land/ 팔로우 하시면 지금은 미흡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올려 볼 생각입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이승모T의 독/해/도/구 심화 자료] - #네가 이해가 안 되면 남도 같다 #공부할 때는 이해해보자 #똑똑해지기

1. 양자 역학과 비교전 논리 지문 중, 6문단 'LP'에 대해 -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 읽다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1~2문장이 나온다.
- 차분하게 반복해서 읽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어쨌든 이해하지 않아도 좋은 문장일지도 모른다.

지문을 보자. 조건문을 정리해가며 차분하게 읽으면, 고전 논리와 LP의 차이가 명확히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한 문장이 있다. 바로 밑줄 친 부분이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교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의의가 있다.

*LP :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밑줄 친 문장은 아무리 읽어도,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왜 그런지에 대해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럴 땐 그냥 남들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가야 한다. 혹시라도 물어보면 돌아와서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다.

1. 밑글을 통해 ㉠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 ①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은 '거짓'이다.
- ② LP에서 ㉠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③ LP에서 ㉠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④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
- ⑤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답은 ⑤이다. 생각해봐라.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의 밑줄 친 문장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었다. 이것은 실전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공부를 하는 셈으로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 이해해보자.

조금 더 국어적 사고가 똑똑해지길 바라며,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싶다면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해해보고, 그럴 여유가 없다면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좋다. 이 정도까지의 사고는 문제를 풀 때에는 굳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II. 양자 역학과 비교전 논리 지문 중, 6문단 'LP'에 대해 - 이해해보자.(분석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다시 차분하게 읽어보자. 일단 이 문단이 최대한 이해되어야 이 이후를 진행할 수 있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교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LP :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이승모T의 기출스러운 사고의 정리]

전건 긍정 규칙 : P이면 Q이다.(조건문) /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 후건도 반드시 참이 된다.
(전건) (후건)

예) 박지성이 은퇴한다면 축구 팬들이 섭섭해 할 것이다.(조건문이 참이고)

박지성은 은퇴한다.(전건도 참이면)

그러므로 축구 팬들이 섭섭해 할 것이다.(후건도 참이 될 것이다)

- 교학사, '고등학교 논리학' 교과서 발췌

고전 논리 :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

LP :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학생은 여기까지

[이승모T의 전혀 기출스럽지 않은 고급 추론] - 읽/어/보/기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전제] LP에는 참과 거짓, 참 동시에 거짓이라는 진리치가 존재.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 그대로 해석하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임. 또한 후건 역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함.(전건 긍정이 성립한다면!)

결국, LP에서 전건긍정규칙이 성립하려면,

① 조건문이 ‘참’ 혹은 ‘참 동시에 거짓’ + 전건 역시 ‘참’ 혹은 ‘참 동시에 거짓’ → 후건 ‘참’ 혹은 ‘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② 즉 LP에서 전건긍정규칙이 성립한다면

1) 조건문(참) + 전건(참) → 후건(참)

2) 조건문(참 동시에 거짓) + 전건(참 동시에 거짓) → 후건(참 동시에 거짓)

굳이 다 쓰지 않았으나, 이런 경우의 수가 8개가 나옴.(정말 몰라도 됨!!)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문제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얘가 왜 이런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한 번 끊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5문단의 거짓말쟁이 문장 논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위의 논증은 이미 5문단의 거짓말쟁이 문장에 제시되어 있었는데요.(비문학에는 잉여가 없지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독하고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문장은(전건) 거짓이다.(후건)”→ 조건문 / 지문의 밑줄 그은 부분 보면서 따라가 보면,

1) 이 문장은(전건을 참으로 가정) 거짓이다.(후건) → 거짓말쟁이 문장(조건문 거짓)

2) 이 문장은(전건을 거짓으로 가정) 거짓이다.(후건) → 거짓말쟁이 문장(조건문 참)

위의 것은 일부러 6문단과 맞춰 쓴 거고, 사실은 우리가 수업시간에 했던 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1)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면(조건문이 거짓이면), 이 문장은(전건은) 참이 되고

2)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면(조건문이 참이면), 이 문장은(전건은) 거짓이 된다. 사실은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끊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6문단에서 우리가 몰랐던 그 문장입니다.

5문단의 거짓말쟁이 문장 논증입니다.

- 1) 이 문장은(전건을 참으로 가정) 거짓이다.(후건) → 거짓말쟁이 문장(조건문 거짓)
- 2) 이 문장은(전건을 거짓으로 가정) 거짓이다.(후건) → 거짓말쟁이 문장(조건문 참)

6문단의 LP의 전건긍정규칙 반례입니다.(문단의 흐름상 그럴지요.)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이 문장 말 그대로 정리하면, 전건(참 동시에 거짓)이면 후건(거짓)이다.(조건문 참 동시에 거짓)이 됩니다.

전건이 참 동시에 거짓이므로 이것 역시 두 가지의 경우로 분류가 가능하네요.

- 1) 전건(참) → 후건(거짓)으로 가정하면, 조건문은 거짓이 된다.
 - 2) 전건(거짓) → 후건(거짓)으로 가정하면, 조건문은 참이 된다.
- 여기서 1)의 경우 조건문이 거짓이 된다는 것과 2)의 경우 조건문이 참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 문장과 똑같이 구성한 것입니다.

1)과 2)에 의해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승모T의 결론]

5문단의 거짓말쟁이 문장 논증과 LP의 전건긍정규칙의 반례는 같은 말입니다. 정확히는 거짓말쟁이 문장 같은 것이 LP에서 전건긍정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반례가 되는 것이지요. 거짓말쟁이 논증을 따져보면 조건문은 참 동시에 거짓, 전건도 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어느 경우에도 '거짓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문단의 반례 역시 조건문과 전건은 참 동시에 거짓 그러나 후건은 거짓이 됩니다.

즉 이 지문에서는 거짓말쟁이 문장의 논증을 먼저 보여주고 LP의 반례를 얘기했던 것이지요.

쉽게 말해 5문단의 거짓말쟁이 문장 논증을 완벽히 이해하고 LP에 적용할 수 있었어야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이 문장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당연히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평가원은 정말 대단한 집단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는 실제 시험 때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것이 숨어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차분하게 읽으면서 이해한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고생 많았어요.